



안녕하세요 저는 신춘희 수녀입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 9남매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는 뭔지도 모르고 언니 따라서 공소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 기억 안에는 하느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성인이 되어 세례도 받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본당수녀님의 권유로 성소피정을 다니게 되었고, 그 후 1993년 수도회 입회를 하여 올해는 은경축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첫사도직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충주성심맹아원에서 3년, 본당 사도직은 부산교구 활천성당, 광주교구 광영동성당에서 다시 첫사도직이었던 충주성심맹아원으로 파견을 받았습



니다. 봉사자로 6개월 예정이었으나, 하느님은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듯이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하였고,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에 대해 알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씨튼가족으로 3년 사도직을 한 후 꿈과 열망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파견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하며 꿈을 꾸었던 것이 생각났고, 새로운 다짐을 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제가 꿈을 꾸는 것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에는 방문교육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자녀들과 부모들을 위해 센터에 나오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여 한국어를 배우도록 지도 하였고, 초등학교 입학 전과 후에 자녀들에게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서비스를 하는 교사를 파견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화, 언어 등의 차이로 일어나는 어려움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방문서비스를 담당하면서 다문화사업을 맡고 있지만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어느 순간에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을 위해 오는 여성들의 젊음과 열정을 보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행복을 향해가는 목적지는 다르지만 서로 노력하며 한곳을 향해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 한국사회에는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세상에서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할 때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쉽지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 am Sister Shin, Chun Hui. I was born in a small town as the youngest of 9 children. When I was young, I attended church services with my sister at a mission station even though I didn't know what it was. Perhaps thanks to memory of those days God led me to church, I was baptized as an adult and volunteered at my parish. Then, one of my parish sisters invited me to join a vocation retreat. Finally,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in 1993 and celebrate my Silver Jubilee this year.

My first ministry was at Sacred Heart Rehabilitation center in Chungju for 3 years. Then I worked at Hwalchun Parish in the diocese of Busan and Gwangyoung-dong Parish in the Archdiocese of Gwangju. When I returned to Sacred Heart Rehabilitation center it was planned that I would stay there as a volunteer for 6 months.



However, as if God showed me a new way, I began to study social welfare. While studying it, I had a new dream and a desire to know and study multiculturalism. After 3 years of ministry with Seton Family I completely forgot the dream but God reminded me. I was assigned to the Multi-cultural Family Center in Gangjin. At first I was puzzled but as time passed, I remembered what I had studied and dreamed. I made a new commitment and prayed with thanksgiving.

However, it was not easy that my dreams came true in real life. At first, I was in charge of home visit education programs. I arranged for Korean staff to teach foreign women who could not come to classes at the center. They also provided education and life guidance services to children before and after elementary school. Through the programs I understood their various situations and tried to provide appropriate services for the foreign women. Difficulties caused by different cultures and languages were not eliminated easily. I still have responsibility for multicultural projects including home visit services. Sometimes I find myself in a dilemma when I have many things to do for them. However, I also have joyful moments. I feel pleased and energetic



to meet young and passionate foreign women who come to learn Korean. It shows me that we all have different destinations for happiness but are standing toward one direction making efforts together.



Even though there can be a closed and unfriendly attitude toward strangers in Korea, I believe that people will find that the world is beautiful if they realize that we all are living together as citizens of the world. It is not easy to live together with strangers. However, we will find hope to see light in darkness and to move forward because God is the one who guides us when we share life together.